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 닷새째 300명 이상 쏟아져

광주, 학교·요양병원 등 확산세 목표, 유흥시설·학원 집단 감염

광주·전남지역에서 연일 300명 이상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남의 경우 목포지역의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에서는 185명이 확진을 받았다.

광주는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산구 소재 요양 시설에서는 1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다. 북구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9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곳에서 모두 68명이 확진됐다. 초등학교 3곳에서 5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12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133명이 확진된 이후 8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230명이 추가 확진돼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만283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18개 시군에서

169명이 신규 확진됐다. 시민 전수 검사가 최근까지 이뤄졌던 목포에서 78명이 확진됐다. 나주에서는 23명이 신규 확진됐고 무안에서도 13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지역별로는 영암 9명, 여수·순천 각 8명, 장흥 7명, 고흥 4명, 곡성·화순·신안 각 3명, 보성·장성·진도 각 2명, 담양·해남·완도 각 1명이다.

전남에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목포 등 16개 시군에서 135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7765명이 됐다. 지역별 추가 확진자는 목포 41명, 무안 29명, 나주 27명, 광양 6명, 보성·영암 각 5명, 여수·장흥 각 4명, 순천 3명, 해남 2명, 담양·곡성·구례·함평·영광·장성 각 1명이다.

목포에서는 새해 들어 유흥시설과 학교,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래 연일 60~8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무안지역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주말과 휴일 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나주지역 확진자는 기 확진자 접촉자 15명, 격리 중이던 어린이집 관련자 5명, 목욕탕 관련 1명, 유증상자 6명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연일 300여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서울만 효력정지

타지역은 그대로 지역 형평성 논란...정부, 오늘 공식입장 발표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특히 당장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 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나온 또 다른 법원 판결은 정반대로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은 안정세, 광주·전남은 연일 최다 "왜?"

'오미크론' 타 지역보다 빠르게 우세종화... 검사량 많아 확진자 조기발견

광주·전남에서는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 쏟아지면서 확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5일 784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새해 들어 3000~4000명대로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광주·전남은 오히려 확산일로 양상이기 때문이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옛날 신규 확진자는 3005명→3094명→4383명→4165명→4538명→4421명으로 일 평균 약 3971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784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찍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새해 들어서 일 최다 및 최저 확진자 수는 각각 4538명(14일), 3005명(10일)으로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새해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나온 하루 확진자는 265명→322명→320명→355명→362명→353명으로 하루 평균 33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상황은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광주·전남은 확산일로 양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새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타지역보다 빨리 우세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요양시설·학원·학교·유흥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타지역을 압도하는 진단검사량도 영향을 준 것으로 시도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가 타지역보다 광주와 전남에서 더 빨리 우세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목포·무안 등 최근 전남 서부권 신규 확진자의 약 7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보건국장은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타지역보다 앞서 이뤄지고 있는데, 타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진단검사량도 높은 확진자 조기 발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새벽 0시 기준, 인구 180만명의 전남은 누적 검사 건수가 302만여건, 140여만 광주는 290만여 건인 반면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175만여 건에 그친다. 10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전국 평균 134.0명, 대전은 900명인데 반해 광주와 전남은 각각 69.7명, 전남 41.6명으로 인구 대비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아마존 전남관 올해 첫 수출품 상차식

11개 기업 16개 제품 11만달러 상당 농수산물식품 선적

전남도가 지난 1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비축기지에서 도내 1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서 판매할 수출 제품의 상차식을 열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은 전남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 고구보 구축을 통한 해외 주류(Main Stream)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물류 대란 상황에서도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상차

식에는 (주)아라움, 좋은농조합 등 11개 기업의 농수산물식품 16개 제품, 총 11만 달러 상당의 농수산물식품을 선적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은 미국에 개설한 202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376만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마존에 개설한 브랜드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전 세계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명실상부한 고구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적한 제품 중 전남도가 2020년 스타상품으로 발굴해 제품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주)아라움의 '크리스피오징어스낵'은 아마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최대 유통체인 중 하나인 코스트코 납품이 결정돼 오는 2월 말 첫 수출길에 오른다.

또 지난해 11월 고흥 에덴식품영농조합이 22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유자주스'를 수출한데 이어 두 번째로 현지 대형 주류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바둑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억 9천만 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림동 561-5(삼성유폴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송지현(700717-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임곡마을로 55, 202동 101호 (임곡동, 현대아파트)
· 피상속인 망 송지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1년 단1364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11일 산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17일
· 상속인: 김은혜(771022-XXXXXX)
광주 북구 임곡마을로 55, 202동 101호 (임곡동, 현대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 17. ~ 2022. 3. 29.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은혜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2년 1월 11일 13:00 시 총사임 동의서로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분은 본 공고제일 다음날로부터 2개월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17일
유한회사 가나건설
목포시 삼학로 203, 제2호 2층 (산정동, 삼학빌딩)
청산인 임유미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지국안내

| 북구 | |
|-------|----------|
| • 동광 | 266-1920 |
| • 문흥 | 266-1960 |
| • 북광주 | 525-3761 |
| • 신안 | 222-8171 |
| • 양산 | 571-7658 |
| • 오치 | 266-7601 |
| • 용봉 | 433-1503 |
| • 우산 | 433-1503 |
| 동구 | |
| • 남광 | 673-6836 |
| • 동명 | 222-9054 |
| • 동부 | 225-6001 |
| • 중앙 | 222-9054 |
| • 총정 | 222-8171 |
| 남구 | |
| • 남부 | 673-6836 |
| • 백운 | 651-1833 |
| • 봉선 | 673-6836 |
| • 송하 | 675-6605 |
| • 신월 | 671-7276 |
| 서구 | |
| • 광천 | 382-5788 |
| • 상무 | 372-2352 |
| • 서광주 | 369-1625 |
| • 운천 | 376-7153 |
| • 치평 | 376-6511 |
| • 풍암 | 603-0311 |
| • 화정 | 369-1625 |
| 광산구 | |
| • 운남 | 952-1687 |
| • 월곡 | 959-1920 |
| • 철단 | 973-2900 |
| • 하남 | 955-0451 |
| • 광산 | 944-0444 |